

전북 341명, 동계체전 참가 체육강도 위상 드높인다

17~20일 서울·경기·강원·경북 등서 분산 개최
바이애슬론서 메달 획득 기대·컬링 등 선전 예상
사전경기서 금 2·은 5·동 2개 등 총 9개 메달 획득

341명의 전북 선수단이 전북체육의 명예를 걸고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 메달 사냥에 나선다. 14일 전라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 등에서 분산개최되는 동계체전에 선수(200명)와 임원(141명) 등 총 341명이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대회는 빙상과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정식 종목(5개)과 봅슬레이스켈레톤, 아이스클라이밍, 루지 등 시범종목(3개) 등 총 8개의

종목이 펼쳐진다. 13세 이하부, 16세 이하부, 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등으로 나뉘어 경기가 치러지며 예상전력 분석결과 전북 선수단은 약 60여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컬링과 빙상, 스키 등에서도 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폐회식 없이 각 종목별 경기가 펼쳐지며 현재 일부 종목은 사전 경기

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경기 집계결과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한 상태이며 빙상(스피드스케이팅)의 정유나(전주제일고)는 30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 2관왕을 차지했다. 또 체육회는 대회 기간 선수트레이너(AT)를 파견,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및 경기력 향상을 높일 예정이다. 전북선수단장인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동계 집중강화훈련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꾸준히 한반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 믿는다"며 "부상 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뉴시스

진안군 탁구협회장 이·취임식

이임회장 원철연
취임회장 조준열



원철연 진안군탁구협회 이임회장(사진 왼쪽)과 조준열 취임회장

진안군탁구협회(회장 조준열)는 지난 13일 진안군탁구회관에서 제4대 원철연 회장 이임과 5대 조준열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진안군의회 김민규 군의장, 이마옥 부의장,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 변성섭 NH농협진안군지부장 등 많은 기관·단체장들과 70여 탁구동호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4대 원철연 회장은 2018년~2022년까지 4년간 진안군탁구협회를 이끌어왔다. 새로 취임한 제5대 조준열 회장은 효과 군의원으로 익히 알려진 진안군의원 출신으로 진안군의회 산업행정위원회 위원장, 진안보건소장, 안전면장 등을 역임했으며, 협회내에서도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미령클럽의 주전선수로 활약할 만큼 탁구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이·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

배구연맹, 프로배구 올스타

실착 유니폼 사전경매 진행

프로배구 올스타들이 착용했던 유니폼이 경매에 나온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4일 "올스타 선수 실착 유니폼 사전경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매 물품은 도드람 2022~2023 V-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올스타전 행사 기간 직접 입고 뛰었던 실착 친필 유니폼이다. 유니폼 인증서 1부가 함께 제공된다. 경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7시까지 9일간 서울옥션 블랙릿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올스타 유니폼 경매를 진행하는 연맹은 경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회 공헌에 활용할 예정이다. V-리그 타이틀스폰서인 도드람양돈농협에서도 경매 수익금과 동일한 액수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매칭기부로 그 뜻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연맹은 연맹 NFT(대체불가토) 사업관자인 블루메디타,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한달간 진행된 1차 캠페인에서는 1,255명의 기부자가 참여, 총 2,961만4,500원을 모금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세단뛰기' 유규민, 국제대회 첫 입상

(익산시청)

카자흐 누르술탄서 개최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16m73로 동메달 획득



익산시청 육상부 세단뛰기 유규민(22) 선수가 올해 첫 출전한 국제대회인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익산시청 육상부 세단뛰기 유규민(22) 선수가 올해 첫 출전한 국제대회인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유규민 선수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 종목에서 16m73를 뛰어 중국, 인도 선수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동메달은 유규민 선수의 국제대회 첫 입상으로서 선수 개인에게도 매우 뜻깊은 수상으로, 아시아 정상을 향해 도약 중인 유규민 선수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청 이주형 육상감독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에 매진한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

은 것 같다"며 "앞으로 열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

이고 있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열린 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서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줄이어

초등태권도연맹 개인선수권, 18~22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서
코리아펜싱클럽챔피언십, 18일부터 이틀간 펜싱아카데미서 개최

익산시에서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줄이어 개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시는 그간 체육대회의 비수기였던 겨울에도 대규모 선수단들이 방문하는 전국대회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제2회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개인선수권대회'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후원을 통해 유치됐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의 초등학교 끝나무 대회로 전국에서 2,000여명의 초등학생 선수들이 익산에 체류할 예정이다. 또한 18일부터 22일간 '코리아펜싱클럽챔피언십'이 종합운동장 펜싱아카데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규모 생활체육 펜싱대회로 올해

익산에서 처음 진행되는 대회다. 익산시펜싱협회에서 주최·주관하고, 상·하반기 2회 진행할 예정으로 각각 500여명 이상의 선수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정현을 시장은 "백제왕도 익산에서의 대회를 통해 기량을 갈고닦아 2023년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한층 더 성장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인프라 개선 등에 지속적인 투자로 스포츠명품도시로 발돋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프로축구연맹 지난해 수입 370억원·지출 354억원

공식 홈페이지 통해 수입·지출 결산서 공시

2021년 대비 수입은 5억2000여만원 증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2년도의 항목별 수입과 지출 결산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공시했다. 이번엔 공시된 연맹의 2022년도 결산

서는 중계권, 대회 협찬금, 공식 후원금,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수입 내역과 리그 운영비, 광고마케팅, 저변확대 및 리그 활성화, 교육 사업비 등의 지출

내역이다. 2022년도 수입은 총 369억7,6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약 5억2000만원 증가했다. 지출은 353억5,7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4,200만원 증가했다. 결산 손익은 16억1,900만원이다. 연맹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이적연도 결산서를 공시해오고 있다. /뉴시스

